

삼성·LG, 아이폰 고객 잡아라… AI홈 생태계 확장 경쟁

삼성,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고도화 기기 제어 속도·타사 호환성 강화

LG, 애플과 IoT 기기 7종 공동 개발 가전 넘어 보안·환경관리 영역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 아이폰 이용자까지 고객 기반을 넓히며 인공지능(AI) 홈 플랫폼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의 기기 연결과 제어 기능을 강화하고, LG전자는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앞세워 AI홈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앱의 홈 화면을 개편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기 제어 기능과 외부 제품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9일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앱의 홈 화면을 개편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동화 기능과 최근 실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해당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버전보다 먼저 배포됐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스마트싱스 홈 화면 상단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 기능을 보여주는 ‘스마트싱스 나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주 사용하는 자동



모델이 AI홈 플랫폼 ‘싱큐’, AI홈 허브 ‘싱큐 온’, 실행형 AI 에이전트 ‘싱큐 클로’를 활용한 AI홈 솔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화 기능과 기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 화면 구성도 변경했다.

기기 제어 방식도 개선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싱스 허브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허브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자체 시험 결과 기존 클라우드 기반 제어 방식보다 응답 속도가 약 30% 개선됐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싱스 앱을 설치한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에서 모두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외부 제조사 제품과의 호환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업데이트에서는 스마트홈 연결 표준인 매터(Matter) 1.6을 지원하고 에너지 계량기, 특수형 문·게이

트 카페 장치, 관개 장치, 토양 센서 등 새로운 기기 유형을 추가했다. 지난 4월에는 아케아의 스마트홈 신제품 25종과 스마트싱스의 연동을 발표했다. 스마트 전구와 플러그, 온습도·공기질 센서 등을 아케아 전용 허브 없이 스마트싱스 허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싱스를 설치해 지원되는 삼성 가전과 타사 IoT 기기를 연결하고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다만 기기 종류와 운영체제에 따라 지원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LG전자는 애플과의 공동 제품 개발을 통해 AI홈 기기와 서비스의 연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애플과 공동 개발한 IoT 기기 7종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연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공개된 제품은 실내 카메라와 실외 카메라 2종, 도어벨, 도어락, 온도 조절기, 온도 센서 등이다. LG전자는 제품 구상 단계부터 애플과 협력해 가전 및 주거 공간 관련 기술에 애플의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을 접목했다. 신제품 7종은 LG전자의 AI홈 플랫폼 ‘LG 씽큐’와 애플 생태계에 모두 연동된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을 연결하고 외부에서도 기기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품별 AI 기능도 적용했다. 실외 카메라와 도어벨은 사람과 동물, 차량, 택배 등을 구분해 알람을 제공한다. 온도 조절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와 연동해 사용자 위치와 날씨 등을 분석하고 냉난방을 조절한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기존 가전 중심의 AI홈 서비스를 보안과 출입 관리, 실내 환경 제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홈 허브 ‘싱큐 온’과 씽큐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IoT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조업 AI 전환에 5조 투입… 2030년까지 6000곳 육성

중기부, 디지털 AI 확산 전략 발표
디지털 전환 기업 3만개사 육성 추진
제조업 AI 도입률 1% → 10% 확대
전문기업 500곳·2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DX) 기업 3만개사, AI 도입기업 6000개사를 육성한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DX를 30%에서 50%로, AI 도입률을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천안 중근당 천안공장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제조 디지털 AI 확산 전략’을 공개하고

디지털 AI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했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에 5조원이 넘는 국가 자원을 투입해 ‘3X 전략’을 추진한다. 3X 전략은 DX로 확보한 데이터를 AI 전환(AX)과 로봇 전환(RX)으로 연계 및 융합을 뼈대로 한다.

전략은 ▲도입기업의 AX ▲기술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선순환 ▲지역·인력 기반 확충 등 4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의 AX 가속화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DX·AX를 뒷받침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의 신성장 분야와 지역 유망기업

의 AI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장비·공정·공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AI 통합 실증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공장장’, 산업통상부의 암묵지 기반 AI 모델 등을 중소 제조업 현장에 맞게 적용해 국가적 AI 투자의 온기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게 한다. 제조 로봇 보급과 연계한 휴먼노이드 개발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형 AX선도모델 정착도 돕는다.

공급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데이터·AI·로봇 융합에 필요한 기

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로드맵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도 뒷받침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기술공급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과 기술개발·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중기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AX 전환을 이끌 전문기업 500개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100개사를 지정한다.

중기부는 AI 개발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및 서비스 공급용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AI 기술 보유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강원 창업기업, 수경재배 유기농 인증 요구

중기 옴부즈만·중진공 현장간담회
인증 확대·팻푸드 표시 기준 등 건의

강원지역 창업기업들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수경재배 농산물 유기농 인증 허용, 팻푸드 광고·표시 가능 범위 안내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9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상훈 중진공 강원지역본부장, 손형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지역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스마트팜 창업



최승재 옴부즈만이 29일 오후 강원도 원주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기업은 유기농산물 인증 대상을 수경재배 농산물까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까지 관리하며 깨끗하게 키워도 수경재배라는 이유만으로 유기인증은 아예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 경기전망 ‘먹구름’… 11월도 하락세

경기전망지수 81.5로 전월比 1.8p ↓
제조·서비스업 부진에 기대감 위축

중소기업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81.5로 전월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11월 경기전망이 전월대비 1.6p 하락한 85.7,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9p 하락한 79.5를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63.5→79.8, 16.3p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88.3→96.6, 8.3p ↑)

을 중심으로 9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95.0→84.3, 10.7p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89.1→79.4, 9.7p ↓) 등 14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선 건설업(69.8→69.3)이 전월대비 0.5p 하락, 서비스업(83.7→81.6)은 전월대비 2.1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중소기업 경영성애로요인은 ‘매출(제품판매) 부진’(51.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원자재(원재료) 가격상승(37.3%) ▲업체간 경쟁심화(30.3%) ▲인건비 상승(28.8%) 순이었다.

/김승호 기자

SK이노베이션

정유·유티유 수익성 개선
3분기 영업이익 3.7조 ‘최대’

SK이노베이션이 정유·유티유 사업 호조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수출마진 강세가 실적에 아른 가운데 4분기에도 석유제품 공급 감소와 동절기 수요 증가로 정유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매출 28조7738억원, 영업이익 3조704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8조1819억원, 영업이익은 3조1186억원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수출마진 강세
4분기도 석유제품 수급 개선 기대

사업별로는 정유 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가 매출 15조9276억원, 영업이익 1조2058억원을 거뒀다. 중동 정유설비의 가동을 저하와 러시아의 경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이 줄고 여름철 수송용 연료 수요가 늘면서 수출 수익성이 개선됐다.

SK엔부르는 유티유 공급 차질로 제품과 원료 간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출 2조3671억원, 영업이익 1조906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388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 이익만으로 종전 연간 최대치인 2022년 영업이익(1조712억원)을 넘어섰다.

SK이노베이션 E&S는 계절적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상승과 발전소 가동을 개선으로 매출 3조1237억원, 영업이익 7744억원을 거뒀다.

/원관희 기자 wkh@

레이크머티리얼즈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
몰리브덴 전구체 국산화

레이크머티리얼즈가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인 몰리브덴(Mo) 전구체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합성·정제부터 양산과 공급시스템까지 관련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인 초고순도 몰리브덴(Mo) 전구체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

몰리브덴은 3D 낸드 고적층화와 D램 미세화에 따라 기존 텅스텐 배선의 저항 한계를 보완할 소재로 꼽힌다. 관련 전구체는 해외 기업 중심으로 공급돼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연내 전용 R&D 사업에 착수해 4년간 정부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포함한 약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몰리브덴 전구체의 합성·정제·양산 기술과 전용 캐니스터·공급시스템을 함께 개발한다.

/원관희 기자